

굶주림은 곧잘 비굴함을 불러들인다. 예부터 이를 간파한 군주 가운데 백성이 비굴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은 성군이라면 백성들의 채워주는 일에 힘썼을 것이고 독재적 성향을 가진 군주였다면 백성의 가난을 알뜰히 챙기지 않았을 것이다. 비굴한 복종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군주에게 바람직한 통치술로 보였을 것이다.

나라의 양식 주머니 끈을 혼자 독점한 다음, 굶주린 이들에게 조금씩 베풀며 '감사함'을 받아들이는 그 기분이란?

굶주린 백성들은 그때마다 군주의 온정 넘치는 베풀음을 찬양했을 것이다.

'따뜻이 입혀 주시고, 배 불러 먹여 주시고...' 그런 세상에서 백성들의 그 찬양은 어쩌면 진실이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베풀음이 과연 온정일까? 그것은 온정도 자비도 자선도 사랑도 아닌 사악함이다. 희한하지만 현대세계에서도 그런 '비굴한 복종'을 통치술로 여기는 대책 없는 폭군의 나라가 아직 몇 곳 있으나 '온정'에 대한 의미는 시대를 달리하며 바뀌어 왔다.

동·서양, 봉건시대 식민시대의 양반 귀족 계급이나 지배계층 가운데 자기 땅이나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알뜰히 챙긴 온정 넘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한량없는 공덕' 이해 할 수 있다면

야 보기에 드문 자비로운 행위로 상찬의 대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심리를 깊게 파고들 줄 알게 된 현대는 이를 '온정적 간섭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상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온정'이라든 '온정'의 의미가 상당히 희석된다.

여러 이데올로기의 시합을 거치며 사회주의 자본주의 시대를 품으로 겪으며 살아 온 현대인들에게 자선, 기부, 온정, 사랑, 자비 등 단어들이 갖는 의미와 이들 단어들에 갖는 체감온도는 지난날에 비해 상당히 다르다.

인간 탐욕만을 극대화 한다는 비판을 들어 온 자본주의도 이제 가진 자들이 나서 세계의 빈곤과 질병, 양극화를 없애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창조적 자본주의'에 눈 뜨기 시작했다. 가진 자들의 자선은 가진 자들의 의무라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이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재벌들이 세운 자선단체들, 그 이외에 3만여 개의 크고 작은 자선단체에서도 그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가진 자

들에 의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옛 현인들이 지적했듯이 '사유재산은 개인이 자연으로부터 잠시 맡아 있는 것'일 뿐이다.

소유와 보시는 그래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 다니는 것이어야 한다.

달마대사가 양무제의 '수많은 보시에도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답한 뜻을 헤아린다는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한량없는 공덕'을 이해 할 수만 있다면 해도 우리는 자신 자비 사랑 온정 등의 단어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의 선심을 분석하고 파헤치며 의심하거나, 베푸는 이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면 이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상당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 기부했다고 한다.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분명 앞선 실천으로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비슷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받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서 이를 부추기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그의 '기부'를 보다 높은 경지로 이끌 수 있는 길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마음 가짐임을 그가 알고 있을까?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불만평 박구원

마음의 정화가 되는 휴가계획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형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중구로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대찌어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대찌어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이온 www.yosiamun.com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충청지사: (043)732-5560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7월의 테마-휴식

때 이른 무더위 속에서 여름휴가를 고민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열심히 일한 자들이 휴식을 위해 떠나고자 하는 소리이다. 경합을 돌이켜 보면, 여름휴가를 통해 휴식을 얻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휴가지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교통체증과 도로의 열기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휴가지에 도착해서는 수많은 피서객들로 인해 지쳐가 된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휴식의 방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부처님의 휴식은 어떠했을까? <증일아함경> 권2, <광연품>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휴식에 대하여 나와 있다.

부처님이 수리아바스티이 제다술의 '외로운 이 듣는 동안'에 머물고 있을 때다.

"휴식이란 마음의 생각이 쉬고 뜻이 조용하고 밝으면서도 경솔하거나 사납지 않고, 항상 마음을 온전하게 해 뜻은 한가지 있기를 즐겨 하며, 언제나 방편

'고요' 통해 참다운 휴식 취하길

을 구해 삼매에 들어 지나친 광명이나 위로 오름을 탐하지 않기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했다.

부처님이 설한 휴식을 위해서는 '고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의 생각이 쉬기 위해서도, 뜻이 조용하고 밝기 위해서도, 뜻이 경솔하거나 사납지 않음 위해서도, 마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뜻이 한가지 있기를 즐기 위해서도, 그리고 삼매에 들기 위해서도 마음과 주변이 고요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떠나는 여름휴가에는 '고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휴식 없는 더욱 피하기 쉬운 휴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올여름 휴가에는 그 동안의 번잡함을 벗어나 '고요'를 찾아 참다운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다행히도 전국의 각 사찰들이 휴가철을 맞아 고요한 휴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휴가로 스님들의 생활과 수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새벽 숲길을 걸으며 자신을 찾아보는 프로그램, 참선과 명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등 사찰의 고요한 환경을 배경으로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독서, 음악 감상, 산행 등 일상 속의 작은 틈을 적절히 활용한 '고요'를 통해 그 속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참다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혼자서도 가능하고 배우자나 가족과도 가능하기에 더욱 현실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바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바쁜 대부분의 이유는 마음속에 지나친 광명이나 출세와 같은 세속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조계종의 두 교구분사도 그는 없는 사회 만물기에 경기도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은 불교다운 행보다. 불교는 바로 인간의 무한지위를 향한 종교다.

그늘진 곳에서 가난과 불행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불국토 건설이라는 불교의 궁극을 실현하는 일이다. 두 교구 분사는 위기가장정 무한돌봄 사업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을 것이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템플스테이를 통한 희망 만들기

와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들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포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경전을 가르치고 찬불가를 부르지 않아도 세상을 향해 무한지위의 희망을 심어 주는 것이 이미 포교다. 두 교구분사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조기경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데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진족,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책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중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로에이 팔꿈치 통증·관절통증·허리통증·어깨·목통증

신제품

MSM Glucosid & Omega Cream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로에이 크림이 항상 통증을 고��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로에이 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뻠잡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을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 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글로벌로에이 크림을 발라주

갸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렇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명 임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뺏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보인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